

企劃論文

문학과 구술자료를 통해서 본 입양인의 자기정체성  
- 에릭 H.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중심으로 -

김진영\*

I. 들어가는 말	IV. 분석과 평가
II. 에릭슨의 아이덴티티(자기정체성)	V. 나가는 말
III. 입양인들의 이야기	

I. 들어가는 말

에릭 H. 에릭슨의 아이덴티티(identity)란 용어는 개인의 생애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원적인 추구를 하게 되는 인생의 여정 자체를 함의한다. 본 연구자의 삶 역시 다양한 차원과 국면의 자기정체성 추구의 삶이라 하겠다. 삶의 본질이자 원동력인 생명, 도덕적 가치, 일련의 신비하고 중요한 종교 체험의 장을 제공해 주었던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에 의하여 내면화된 자기정체성을 주축으로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에릭슨은 자기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아의 능력(ego’s quality)들, 즉 기본적 신뢰(basic-trust), 자율성(autonomy), 주도성(initiative), 근면성(industry), 자기정체성(identity), 친밀성(intimacy), 생산성(generativity) 등을 통합할 때에 진정한 성숙한 인격, 즉 자기통합(integration)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sup>1)</sup>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목회상담/종교심리학 전공.

1) Erikson, Erik H.,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본 연구에 앞서 필자가 입양인에 대하여 가졌던 관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양육자에 의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없거나 제공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제공되었던 대책은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데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가 열렸을 때 혐오 음식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던져진 비난이 ‘고아 수출국’이라는 것이었다.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혈족외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국내입양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토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소한의 양육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관심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는 유학을 시작하여 이민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미국에서의 생활은 본 연구자 자신의 자기정체성을 포함하는 이민사회와 이민자들의 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 당시에 발견한 필자의 자기 의식은 미국의 주류 사회(main stream)에 속하지 못한 ‘주변인(marginal person)’이었다. 본 연구자를 포함하는 이민자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실감과 때로는 외로움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자기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필자의 자기 인식은 미국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건장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계 이민자와 함께 이민역사의 주요 구성원들인 입양인의 자기정체성 형성의 경험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논문은 에릭슨의 삶을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문헌들에 나타난 자기 인식과 자기정체성 개념을 살펴보고, 에릭슨이 정의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양인들의 자기정체성 및 자기 인식과 관련된 가설을 세우게 된다. 에릭슨의 자기정체성 개념을 근거로 세운 가설을 중심으로 입양인들이 참여한 인터뷰 자료들과 문서들을 조사하여 자기정체성에 대한 이해 즉,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 혼란, 상실감, 원 부모를 향한 노스텔지어 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 II. 에릭슨의 아이덴티티(자기정체성)

### 1. 아이덴티티: 자전적 접근

에릭슨은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1902년 6월 15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소아과의사였던 디어도어 홈버거(Theodore Homberger) 박사와 그의 아내 칼라 니 아브라함센(Karla Nee Abrahamsen)의 아들로 남부 독일의 칼스루에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태생이었다. 내 어린 시절 동안 그들은 나의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 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두었다. 나는 곧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버린 덴마크인의 아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듯이 나는 이 비밀을 마음에 두고 살았으나 어머니와 내가 단 둘이 살았던 세상 이전의 시절은 기억해 낼 수 없었다.<sup>2)</sup>

폴 로젠(Paul Roazen)에 의하면, 에릭슨은 1955년에 자신의 출생에 관하여 “나의 아버지(생부)는 내가 출생할 무렵에 사망하였으며 어머니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다”<sup>3)</sup>고 하였다. 에릭슨은 자신의 임상적인 연구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낼 때에 양부의 이름인 홈버거(Homberger)의 이름으로 초기에 냈었다. 그러나 후일에 자신의 이름을 에릭슨으로 바꾸었으나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하여 그의 자서전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이 입양된 상태에서 양자로서의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에 대한 심리적인 쟁투가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로버트 콜즈(Robert Coles)가 저술한 에릭슨의 전기에서 그는 자신의 가계에 대한 서술에서 “나의 어머니의 가문은 유대인이었다”<sup>4)</sup>고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가

---

2) Erikson, Erik H., *Life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 W. W. Norton, 1975, p. 27.

3) Erikson, Erik H., “The Childhood Genesis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 Tanner and Inhelder, ed., *Discussions on Child Development*, Vol. III, p. 16, Paul Roazen, *Erik H. Erikson: The Power and Limits of a Vi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6, p. 95에서 재인용

문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sup>5)</sup>고 서술하고 있다. 로젠의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의 종교에 관하여 에릭슨은 공개적으로 뉴욕 타임스에 언급하였는데 어머니는 유대계 덴마크 인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비유대계 덴마크 인이었으며 양아버지는 유대계 독일인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의 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가계와 함께 기독교 배경의 조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양부인 닥터 흄버거와 관련한 내용은 양부가 늘 독려하였던 의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권유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미국 최초의 아동정신분석가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 양부에 대한 존중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양부의 독려를 수용하고 실현한 셈이 되었다.

에릭슨은 이와 같이 어머니와 양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을 항상 두 범주 사이에 놓인 존재로 인식하며 지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에릭슨의 청년기 당시 살고 있었던 곳은 슐레스빅-홀스타인이었다. 이곳은 독일과 덴마크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던 곳이었다. 이 두 국가들의 영토분쟁은 에릭슨이 칼스루에에 있는 김나지엄(gymnasium)에 들어간 때에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일편에 서있었다. 이 때문에 에릭슨은 동료들로부터 면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인 그가 독일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는 열 살부터 열여덟 살에 이르기까지 칼스루에의 김나지엄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독일 문학을 섭렵하였다. 에릭슨은 양부의 종교를 따라 유대교 회당을 출석하였는데 외모로는 스칸디나비아 인으로 ‘이방인(goy)’으로 일컬어지며 학교에서는 유대인 취급을 받는다.<sup>6)</sup> 에릭슨의 성장환경은 그로 하여금 인격적인 아이덴티티는 물론 자신의 직업적인 정체성에 대하여도 어떤 범주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영향을 미쳤다.

에릭슨은 대학을 가지 않고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공부하였다. 뮌헨에 있는 유명한 둔스트.아카데미인 예술학교에서 이년을 보낸 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생활하였다. 일종의 “도피(escape)” 라고 불렀던 시

4) Coles, Robert, *Erik H. Erikson: The Growth of His Work*,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0, p. 180.

5) *Ibid.*, p. 181.

6)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1963 참조 에릭슨의 자서전적인 기록을 참고할 것.

기를 지나던 그는 나무 조각을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상상력을 다하여 공부하였다. 김나지엄 시절에 함께 공부하였던 피터 블로스(Peter Blos)의 초청 편지를 받고 비엔나에서 안나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을 받는 계기를 얻는다.

1927년과 1928 년은 그에게는 여전히 예술가로서의 직업적인 아이덴티티를 추구하였으나 자신의 역할 혼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에릭슨이 예술가와 정신분석가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의 위기 가운데 어느 날 안나 프로이드에게 분석을 받게 된다. 그녀에게 자신의 혼란한 상태를 이야기하였을 때 정신 분석가 역시 예술가와 같이 자신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느”기 일이라는 말을 잇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서와 정신분석가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처한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두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할 때에 정신분석은 에릭슨에게 ‘습관적인 양자(habitual stepson)’ 의식을 더하여 주었으며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사용할 곳이 어느 곳에도 없다는 위기감을 인식시켰다고 고백한다.<sup>8)</sup>

에릭슨은 평생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늘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기 보다는 자신이 소속하지 않은 곳에 자신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양자의 자기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에릭슨이 표현한 바 심각한 자기정체성 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슨의 이와 같은 자기정체성 위기와 두 전문분야 사이에서의 방황 등의 주제는 입양인의 자기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관한 주제를 살피는 목적과 배치되지 않고 도리어 에릭슨 자신이 평생 추구하였던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입양인 자신들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는 일맥상통하는 특성과 국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반유대정서가 팽배하던 1933년에 그는 결혼한 부인과 처음에는 덴마크로 이민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미국 보스톤의 케임브리지로 이민을 와서 정착하여 미국 최초의 아동정신분석가가 된다. 그 역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파에 입양된 정신분석가로서 에릭슨은 햄버거라는 이름과 많은 경우 햄버거와 혼동하게 되는 것에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아들에게 ‘에릭의 아들(Erik's son)’이란 뜻으로 에릭슨을 제안하여 자신이 스스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sup>9)</sup>

7) Coles, Robert, *op. cit.*, p. 122.

8) Erikson, Erik H, *op. cit.* (1975), p. 66.

## 2. 개념적 정의

에릭슨은 정신분석학계에서의 자신의 학술적 입장을 확실하게 내리지 않고 있다. 자신이 평생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아이덴티티의 개념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로젠은 이러한 에릭슨의 특징을 한 단어로 ‘파악하기 어렵다 (elusive)’고 묘사하고 있다.<sup>10)</sup> 젊은이들을 위한 자기정체성을 다룬 책에서 에릭슨은 “자기정체성의 형성은 동시에 일어나는 자기 성찰과 관찰의 과정을 취한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자기를 판단하므로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기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sup>11)</sup>이라 설명한다. 즉 자기정체성이란 청소년기 이전에 발생한 동일시와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영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발달적이며 역사적인 국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interplay)이므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동원하여 분석해야 되는 심리사회적인 연관성을 갖는 개념”<sup>12)</sup>으로 보고 있다.

에릭슨은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기정체성의 국면은 인격과 직업적 관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위와 같은 에릭슨의 개념을 돈 S. 브라우닝(Don S. Browning)은 “상호활동과 상호 규제의 부산물”<sup>13)</sup>로 정의하였다.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에서는 “한 개인의 내적인 동일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것과 동시에 “타인을 향한 자신의 의미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일치될 때에 가능한 품성”<sup>14)</sup>으로 보았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정신분석적 평가에서 에릭슨은 시간과 공간에 준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의 정체성에 성공적

9) Roazen, Paul, *op. cit.*, pp. 98~99.

10) *Ibid.*

11) Erikson, Erik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p. 22.

12) *Ibid.*, p. 23.

13) Browning, Don S., *Generative Man: Psychoanalytic Perspectiv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p. 166.

14) Erikson, Erik H., *op. cit.* (1963), p. 261 참조, 에릭슨 저, 윤진 역, 『아동기와 사회』(중앙적성출판사, 1988).

인 변인으로 통합하는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지향과 헌신의 틀”<sup>15)</sup>이라는 개념과 흡사하다. 프롬과 브라우닝에 의하면 에릭슨의 자기정체성 개념은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전체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하여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인격의 발달과 직업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지향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중심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 안에서 한 개인이 영위하는 삶에 대한 현실감각이며 동시에 개인적 인식의 역량이며,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 분석을 위한 작업가설

첫 번째 가설은 대략 3세 이전 혹은 이후의 시기에 입양하게 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타자(원 양육자)’와의 일관성 있는 내면화와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즉, 대략 3세 이전에는 자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기본적 신뢰(basic trust)’와 ‘자율성(autonomy)’의 습득 과정에 있을 때에 입양된 아동인 경우에 기본적 신뢰감과 자율성 형성에 중대한 결핍요인이 발생하여 나중에 성장과정에 있어서 자기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에릭슨의 전기적 연구와 그의 저술들로부터 구성된 발달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 부모에 의하여 출생하거나 또는 인종 간 결혼에서 출생한 아동이 서구 가정에 입양이 되었을 때에 원가정과 입양가정 혹은 입양된 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 양자 사이에서 주변인(marginal person)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자기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자기 인식에 대한 일치성(consistency)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신적 혼란 상태가 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가설에 관하여 입양인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예측되는 어려움이란 양육자인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성장하였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갑작스런 분리로 인

---

15) Browning, Don S., *op. cit.*, p. 167.

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영아기(0~1세)의 발달단계에서는 엄마의 애정 어린 돌봄을 통하여 자아능력(ego's quality)으로 기본적 신뢰감(basic-trust)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의미있는 타자인 엄마의 부재로 인하여 유아는 기본적 신뢰감 대신에 기본적 불신감(basic mistrust)이 득세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기대감보다는 불신과 불행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분리와 상실의 경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게도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상실 경험을 겪게 되는 입양아동에게는 가중된다는 것이 이 가설의 배경이다.

김민정<sup>16)</sup>의 보고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입양아동이 과거 보호자로부터의 분리와 상실, 과거와 현 보호자에 대한 충성간의 갈등의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과거와의 분리에 의한 발달 과제 상의 어려움 등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적응이라는 주제로 입양아동의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타문화권 국가에 이민자들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의 과정을 입양인들의 상황과 비교 또는 동일시하여 연구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들도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sup>17)</sup>

입양인들의 유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 첫째로 인종적 차별이다.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백인종이 주류를 이루는 백인사회 가정에 입양하게 될 경우에 인종적인 차이에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둘째로 원 부모로부터 분리를 의식할 수 있는 나이이건 아니건 간에 버림받았다는 막연한 느낌이다. 상실 또는 분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셋째로 성장 과정에서 체질 또는 체형, 신체의학적인 차이점에서 오는 척도 부재 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입양인들의 자기정체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 16) 김민정, 「입양가족」,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양서각, 1998); 송은희 외, 『축복받은 나의 삶 해외입양인의 적응과 성공에 관한 사례집』(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2001), 8쪽에서 재인용.  
 17) 허남순, 「성년 해외 입양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미국가정에서의 한국계 입양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통권83호(1984); Kim, D. S., "Issues in Transracial and Transcultural Adoption," *Social Casework*, Oct., 1978; Chartand, W., "Application of Selected Components of a Correspondence Theory of Cross-Cultural Adjustment to the Adjustment of White Families Who Have Adopted Older Children From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79; Gill, O. & B. Jackson, *Adoption and Ra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III. 입양인들의 이야기

#### 1. 연구 범위와 한계

본 입양인 연구는 연구 대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입양인들의 자기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직접적인 면담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입양과 관련된 문헌들을 수집, 조사, 분석하는 연구로서 설문조사 자료, 면담 자료, 자발적인 서술에 의존한 입양체험담과 소수의 자서전에 의존하여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한 작업가설에 의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면담자료와 입양체험담은 입양인들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경험을 지닌 도우미들이 공감과 이해의 분위기를 견지하면서 수행한 면담이었으나 국제입양인 대회에서 행하였던 입양인들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자료였으므로 본 연구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지향점이 달랐던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응답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파악해 내기 위한 ‘치밀한 진술(thick description)’ 과 질적인 연구를 위한 면담 수행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개방적 질문(open ended question)’을 통한 자료 수집의 상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연구 대상들이 비교적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지니고 자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설문 응답자들이었으며 자서전적 문학의 저자들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균형감 있고 객관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역할 혼란 또는 자기정체성의 위기의 와중에 있는 입양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으며 특히 입양인으로서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이나 자기표현을 삼가는 입양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분석을 위한 가설에 합치하는 연구대상을 선별적으로 선택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질적 연구의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자에 의한 심층 면담과 치밀한 서술이 수행될 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던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 2. 1999년 국제한국입양인 대회와 그 보고서

입양인들의 자서전적인 기록들은 그동안 정신분석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적절

한 분량에 달하는 문서들이 많지 않았으나, 몇 권의 출판된 자전적인 문서들<sup>18)</sup>과 1999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에서 열린 국제한국입양인 대회에서 195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입양되었던 성인 입양인들 대략 400명 정도 참석하여 조사에 응답한 것을 정리한 연구자료 등을 통하여 본 입양인들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인들리히와 리버탈(Freundlich & Lieberthal)<sup>19)</sup>은 1999년 국제한국입양인 대회에 모인 입양인들의 자기의식에 관한 조사를 행하였다. 자신들의 연구가 일반화를 위한 통계적 대표성은 지니지 못하는 조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연구의 특성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는 167명의 입양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1955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가정으로 입양된 약 141,000명에 이르는 거대한 입양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조사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도되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자기정체성에 대하여 물어본 질문 가운데 “편안함의 원천”을 찾아서 답하라는 물음에 대하여 응답자의 3분의 1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그 편안함의 원천이 되었으며 다른 3분의 1은 보다 넓게 자신의 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 친구들(26%), 종교적 영적 또는 교회의 여러 자원들(13%), 다른 한국인 형제자매들(8%), 무용, 음악, 태권도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7%), 개방적이거나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사는 것(6%)이었다고 보았다

입양인들이 성장기 동안 자신을 인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6%의 응답자들이 청소년기에 자신을 백인으로 여겼고, 28%가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계 유럽인으로 생각하였고, 22%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미국인 또는

18) Robinson, Katy, *A Single Square Pictur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Manus & Associates Literary Agency, 2002, 최세희 역 『커밍 홈: 해외 입양 한국인 여가자의 뿌리 찾기』 (중심, 2002); 송은희 외, 앞의 책; 조미희, 『나는 55퍼센트 한국인』(김영사, 2000).

19) Freundlich, Madelyn and Joy Kim Lieberthal, *The Gathering of the First Generation of Adult Korean Adoptees: Adoptees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New York: The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1999). 본 자료는 <http://www.adoptioninstitute.org/proced/korfindings.html#intro>에서 발췌한 것임. 이상미 역, 『국제 입양에 대한 입양인의 인식 1999년 국제 한국 입양인 대회』(홀트아동복지회, 2001).

유럽인으로, 14%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아시아인이나 한국인으로 생각하였다고 답하였다.

자신들이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응답은 스스로를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계 유럽인(64%)으로 간주하였으며 백인(11%)이나 미국인 또는 유럽인(10%)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들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것은 아홉 가지의 변수들 즉, ‘한국 전통에의 탐구’, ‘자신의 한국 이름 알기 등을 모아서 입양인들의 민족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연관성을 많이 보인 것은 입양 당시의 연령으로 보다 높은 연령에서 입양된 사람들이 더욱 강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0)</sup>

‘차별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기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인종적인 차이(70%)가 입양(28%)보다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 문화와의 연결성에 있어서는 자신의 뿌리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57%의 응답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만 3세 이하의 연령에 입양한 응답자들(52%)보다 만 3세 이후에 입양된 응답자들(69%)이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하였다고 나타났다. 즉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기억의 흔적들이 많이 있을수록 한국에 대한 방문과 기대감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외에도 소그룹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연령별로 여섯 그룹과 입양인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그룹으로 일곱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토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만 3세 이전에 입양을 하였거나 이후에 하였든지 ‘상실’에 대한 경험은 여전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실이 비록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공통의 문제를 불신이라고 들고 있다.<sup>22)</sup> 이 불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책임성의 부재, 지배적 경향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적 경향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상실감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동의하지 않는 입양인들은 개인의 성격적 경향이라고 보았다.

20) 위의 책, 39~40쪽.

21) 위의 책, 61쪽.

22) 위의 책, 68쪽.

토론의 주요 분야 가운데 성인 입양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는가의 주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입양인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때나 입양가족을 떠나서 지내게 될 때에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었다고 말하였다. 곧 대학 재학 시절에 “더 이상 내 입양가족들에게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sup>23)</sup>고 이야기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입양인들에게서 발견한 문제점은 자신들의 아시아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소개하는 책이나 잡지들이 있으므로 보고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양부모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입양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들의 토의에서는 입양되어 성장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백인으로 여기며 입양가족들과 동일시 해왔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적 전통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체감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sup>24)</sup>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배우자와 파트너들은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도우미들의 관찰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민가족과 입양가족들의 이민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 즉, 차별, 고정관념, 외로움,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등을 언급하면서 이 두 집단의 다른 점을 다루고 있다. 이민가족들은 서로 유머와 대처의 능력을 길러주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입양가족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길러주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미들의 관찰 가운데에서 특기할 사항은 입양인들이 입양부모에게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입양부모들이 자신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한 데 대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

23) 위의 책, 74쪽

24) 위의 책, 88쪽

25) 위의 책, 93쪽

### 3.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

#### 1) 김윤희(Liz Mackie)

이 응답자는 대학에서 미국문화를 공부한 입양인으로 대학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는 비판적 객관적인 통찰력을 얻었으며, “자신 스스로 주변인으로 느끼는 단계와 입양가족이 다른 일반가족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단계를 각각 겪어온 것 같다”<sup>26)</sup>고 고백한다. 또한 알 수 없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문화적 상실감, 친가족의 상실 자신이 출생한 나라에 대한 상실감 등이 그것들이다.

#### 2) 송은희(Joy Kim Lieberthal)

본인의 입양경험을 토대로 입양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정책분석가로 시작하여 현재는 입양 교육기관 및 입양가족 잡지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입양인들이 원가족 구성원을 찾도록 도우며 출생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입양인 아이덴티티에서 찾아낸 사례이다. 입양을 통하여 얻었던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저의 가치관과 신념들이 옳은지를 자문하게 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를 불편하게 느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게 된다”<sup>27)</sup>고 고백한다. 타자 지향적인 자의식이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3) 익명의 응답자

익명을 요구한 응답자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대학의 조교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자신의 정체성을 입양가족의 경험과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십대의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성장과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어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고백

26) 송은희 외, 앞의 책, 77쪽,

27) 위의 책, 91쪽

한다.28) 특히 개혁신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지역 사회의 노약자들을 돕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입양을 통하여 느낀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비교할만한 척도로 유전적, 신체적, 의학적인 잣대가 없었던 것과 인종차별이었다고 보았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나약해 질 때에 부모의 권리포기, 친가족, 분노, 슬픔, 일시적인 생각과 공상으로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중간의 입양의 경험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과 다른 유색인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그들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토로한다. 그는 “우리가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삶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무나 법적 혈연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며 돌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29) 곧 그는 입양이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으나 자신이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였던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 4) GOAL 입양자료

입양인들의 모임인 GOAL에 수록된 한 입양인의 고백이다.

엄마, 나도 엄마가 발표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거기에 있었더라면, 저는 저의 삶의 유산이 주어진 나라에서 살게 된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을 부가했을 것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한번도 후회해 본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였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한국은 나의 뿌리예요. 하지만, 진정한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언더우드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거울을 드러다 보면 한국계 미국인을 쳐다보고 있죠. (엄마, 간혹 제가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고는

28) 위의 책, 116~117쪽.

29) 위의 책, 121쪽.

해요!) 그것과 혈통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의 성장이 모든 것과 연관이 있어요. 사라하고 저는 친 자매가 아니지만 사라하고의 처음 기억은 할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있을 때였어요. 사라와 제가 거실에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 아이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애는 제 동생이거든요! 여전히 제 동생이에요. 저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동생 아닌가요. 엄마와 아빠 당신들도 말이죠. 내 혈육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한국은 입양을 위대한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로 마음이 슬퍼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보다는 미국인이예요. 제가 이 두 문화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sup>30)</sup>

이 사례의 주인공은 자신이 성장한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성취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인 차이점이 주는 많은 좌절감과 주변인으로서 느끼게 되는 무기력감, 무소속감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4. 케이티 로빈슨의 이야기

입양인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자전소설인 『커밍 홈: 해외 입양 한국인 여기자의 뿌리 찾기』에 나온 주인공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곱 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김지윤은 자신의 삶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자 기억이었던 입양 당시 어머니와 외할머니와의 헤어지는 장면에서 자신의 집착을 드러낸다. 그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할머니의 체취와 엄마의 마지막 얼굴표정을 붙들고 있다.

이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 비행기에 몸을 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자신의 바라는 바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버린 나”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자신의 인생의 잃어버린 한 단면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공항에 내렸을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모국어(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 케이티는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느끼지 못한 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한다. 또한 케이티는 외국에서 왔다고

---

30) 골(G.O.A.L)의 웹사이트(<http://www.goal.or.kr/>)에서 발췌한 것

반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던 한국인들이 외모로는 한국인인 자신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모습에 냉담해 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을 느낀다.

자신이 겪어왔던 입양인으로서 최악의 경험은 자신의 뿌리와 친 가족, 자신을 포기한 부모들에 대한 의문을 풀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케이티의 불만은 결국 모국에 대한 문화인식을 심어주지 않은 양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왜 엄마는 나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내가 내 이름과 모국어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왜 도와주지 않으신거죠? 왜 내게 단 한 명의 한국인 친구도 만들어주지 않으셨지요? 왜 좀더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주지 않으신거예요?<sup>31)</sup>

다른 입양인에 비하여 조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이 자라난 자신을 위하여 양엄마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후반부에서 어린 시절 양부모가 아시아인 모임에 케이티를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백인의 외모와 분위기로부터 다시금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과 섞여서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며, 영어를 익숙하게 하게 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아시아인들의 모임을 가기를 꺼려하여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

케이티에게 남아있는 입양 당시의 기억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으며 이를 기억할 때마다 벽찬 감정에 휩싸인다. 소녀 나이 일곱 살은 자신의 버려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나이였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일곱 살 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벽찬 현실이다... 전체적 정황을 이해하기에는 어릴지 몰라도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성숙하다.”<sup>32)</sup> 두 주 동안 줄곧 울어댄 경험을 기억하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관습과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도 집으로 할머니와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지냈다.

---

31) 케이티 로빈슨, 최세희 역, 앞의 책, 56~57쪽.

32) 위의 책, 92쪽



이중 문화권에서의 자기정체성의 갈등은 소녀 케이티에게 외모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대변된다. 자신의 코가 낮아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녀는 빨래집게로 코를 잡고 자보기도 한다. 큰 눈을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성형수술의 가능성을 양엄마에게 제안했다가 여지없이 거절당한다. 이혼을 한 양엄마가 문득 내비친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케이티가 다시금 자신을 사랑하고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 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로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 있는 힘을 다해 견뎌야 했다.”<sup>33)</sup>

입양되어 간지 이십년 만에 한국을 찾아온 케이티는 자신을 입양시킨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아버지와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어린 시절 무척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가 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사소한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였으며,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의문, 그리고 발견이라는 새로운 지평”<sup>34)</sup>이 열려 있음을 발견한다. 곧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은 케이티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불신감과 의문을 대신하여 새로운 희망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였다.

그러나 엄마와 외할머니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절망한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엄마의 생존 여부로 혼란을 겪을 무렵 엄마의 이름이 들어있는 호적서류를 보고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회를 계획한다. 입양 당시의 엄마의 나이가 현재 자신의 나이와 같다는 것은 새로운 감흥을 낳는다. 자신이 엄마를 찾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엄마가 알까? 아버지의 이복오빠와 형제, 아버지의 부인을 차후에 엄마처럼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자신이 눈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을 위하여 양엄마의 한국 방문을 경험한다.

자기의 이복오빠와 백인 양엄마와의 만남은 자기가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양자 간에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만들었다. 자신이 한국인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포착할 수 없었던 두 문화 간의 섬세한 차이, 문화적 뉘앙스를 감지한다. 결국 케이티는 일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의 시각을 가지고서 두 문화의 특징이 자신 안에 내재된 사실을 알게 된다. 양엄마와 오빠와의 대화와 만남<sup>35)</sup>을

33) 위의 책, 123쪽

34) 위의 책, 131쪽

35) 위의 책, 304~306쪽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 즉, 엄마는 감정과 생각이 개방되어 있고 수용성을 갖춘 반면에 오빠는 자신의 안락과 허영을 희생하면서 단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자제의 삶을 갖춘 것을 관찰한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각기 다른 특징들을 자신 안에 어떻게 조화롭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문화의 통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역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고통을 공감하며 용서를 하는 독백으로 마친다.

엄마,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죄의식들을 용서해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엄마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삶의 첫 7년간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떠날 수 있게 놔주신 것에도 감사드려요.<sup>36)</sup>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한국에서의 가계도를 그리며 거기에 자기의 자리를 표시한다. 자신의 출생과 잃어버린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계도에 자신을 그려 넣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 자신을 낳아 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한 구석에 남겨놓은 채, 자신에게 상실의 경험을 안겨준 나라의 원 부모와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과 입양부모에 의하여 자라난 미국을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 IV. 분석과 평가

##### 1. 공통 주제

문헌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장한 입양인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공통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입양되기 전에 원 부모와 가졌던 어린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 2) 입양인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흐르는 ‘상실’에 대한

---

36) 위의 책, 336쪽

막연하거나 또는 뚜렷한 기억, 인상과 느낌 3) 입양된 문화권 내에서 입양인의 청 소년기에 소속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오게 되는 정체성 혼란의 경험, 4) 원 문화와 입양된 문화 사이에서 입양인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통합 노력 등이 본 연구 자가 발견한 공통의 주제였다.

## 2. 상실경험과 추후 복구 과정

갓 태어난 영아기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였거나, 원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분리되는 경험은 입양인들로 하여금 기본적 신뢰감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막연한 상실의 느낌과 기억을 갖게 하였다. 에릭슨이 견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자아 능력인 기본적 신뢰감과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좌절된 입양인은 입양 후 사춘기와 성인 초기까지 성장하면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난관을 경험하고 있었다. 소그룹 토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경험한 이와 같은 분리와 입양과정에서의 혼돈의 경험은 그들에게 막연하거나 뚜렷한 상실의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자기성장을 하는 동안 혼란과 위기를 경험하였던 것을 공동의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다. 기본적 신뢰감의 형성이 결핍되므로 기본적 불신감(basic mistrust)이 우세하게 대두하는 양상이다.

양부모가 제공하는 건전하며 일관성 있는 양육이 입양인의 자기정체성 발달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입양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의하여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내적인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자기정체성의 형성이 가속화 된다. 사춘기를 지나 성인초기에 이르게 되는 입양인은 유아기와 아동기 단계에 결핍되었던 원부모의 표상이 입양부모로 대치되어 내면화되면서 건전한 긍정적 자아 능력을 ‘복구(repair)’하고 ‘보상(compensate)’하여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3. 문화적 소속감과 자기정체성의 확장

원문화와 입양지의 문화 사이에 어느 곳에도 소속할 수 없다는 문화적 소속감

의 상실의 자기정체성 발달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원가족과의 재회의 기회 혹은 모국 방문을 계기로 입양인들은 ‘이곳도 저곳도(both and)’ 자신이 처하고 경험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입양되어 떠나온 한국 문화를 성인기에 이르러 다시 접하게 되며 입양 문화와 한국 문화 두 문화를 통합하는 기회를 만나 자기정체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새로운 차원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 3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가 3세 이후에 입양된 경우보다 한국 방문이나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덜 가지게 되는 것은 입양된 국가에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송은희의 사례에서 입양인 본인이 자신을 향한 평가에 있어서 타자 지향적이며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입양 문화권에서 직업과 문화 정체성을 강하게 견지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지만 자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서구 문화권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의 습득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3세 이전에 입양되어 자율성의 함양을 위한 양육자의 지지가 결핍되었거나 기회를 상실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사춘기 이전에 경험하는 자기정체성의 혼란은 입양인 자신의 출생의 뿌리를 알고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양부모와의 외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가족과 한국 문화와 유사한 문화들에 대한 수치감 또는 혐오감 등을 갖기도 하지만 직업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청년 대학 시절에 이르러서는 모국의 문화와 원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 문화와 모국을 수용하고 화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름의 응답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타인을 돌보는 배려의 정신을 획득하게 되면서 양 문화 사이의 갈등과 괴리를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는 바로 문화 간 간극의 통합적 수용이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 V. 나가는 말

입양이란 부모의 양육이 제공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양육의 환경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원가족이 속한 문화와 입양문화간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입양인의 상황과 입양부모들과 현저히 다른 외모 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자기정체성 형성에 난점이 있었다는 점이 주지할 만한 사항이었다. 입양인들이 자기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문화간의 불일치를 통합하려는 의욕을 지니게 되기까지는 인격적인 발달과 성숙 과정이 요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양인들이 양 문화권 사이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원가족과 입양지의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때에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삶의 여정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시키며 타인들과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관계를 맺어가는 자기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단지 입양인들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도전과 과제는 아니다. 이민자나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기 통합의 과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서울: 가나안 인쇄, 1990.
- 박아청, 『Erikson 아이덴티티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8.
- 송은희 외, 『축복받은 나의 삶: 해외입양인의 적응과 성공에 관한 사례집』. 서울: 홀트가정복지연구소, 2001.
- 에릭슨 저, 윤진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엠팩회원 24가정 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우리집 입양 일기』. 서울: 문화인, 2001.
- 조미희, 『나는 55퍼센트 한국인 해외입양인 출신 화가& 액티비스트 조미희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0.
-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홈: 해외 입양 한국인 여기자의 뿌리찾기』. 서울: 중심, 2002.
- 허남순, 「성년 해외 입양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미국가정에서의 한국계 입양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통권83호, 1984.

- 프로인들리히·리버탈 저, 이성미 역, 『국제입양에 대한 입양인의 인식』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2001.
- 홀트아동복지회 편, 『입양상담 사례집』 2003(2002).
- Browning, Don S., *Generative Man: Psychoanalytic Perspectiv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 Capps, Donald, Walter H. Capps, and M. Gerald Bradford, eds., *Encounter with Eriks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Religious Biography*. Santa Barbara, C.A.: Scholars Press for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1977.
- Chartand, W., "Application of Selected Components of a Correspondence Theory of Cross-Cultural Adjustment to the Adjustment of White Families Who Have Adopted Older Children From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79.
- Coles, Robert, *Erik H. Erikson: The Growth of His Work*.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 Erikson, Erik H.,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 \_\_\_\_\_,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1963.
- \_\_\_\_\_, *Life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 W. W. Norton, 1975.
- \_\_\_\_\_,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 \_\_\_\_\_,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 Gill, O. and B. Jackson, *Adoption and Ra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Homans, Peter, ed. *Childhood and Selfhood: Essays on Tradition, Religion, and Modernity in the Psychology of Erik H. Erikson*. London: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8.
- Kim, D. S., "Issues in Transracial and Transcultural Adoption." *Social Casework*, Oct., 1978.
- Park, Insook Han, James T. Fawcett, Fred Arnold, and Robert W. Gardner, *Korean Immigrants and U. S. Immigration Policy: A Predeparture Perspective*.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90.
- Roazen, Paul. *Erik H. Erikson: The Power and Limits of a Vis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 Robinson, Katy, *A Single Square Pictur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Manus & Associates Literary Agency, 2002

<박사학위논문>

- 권지성,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입양홍보회 참여가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2003.
- 김영화, 「국내입양가정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3.
- 이미선,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2002.
- 김후영, 「養子制度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淸州大, 1996.
- 박인선,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梨花女大, 1994.
- 김창희, 「養子制度에 관한 研究 入養의 成立과 效果를 中心으로」. 중앙대 1986.

<석사학위논문> (1990년 이후)

- 김원희, 「미혼모의 입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설미혼모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2004.
- 박양순, 「해외 입양된 한국인의 한국 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인 입양인을 중심으로」. 서울대, 2004.
- 홍지인, 「입양아와 입양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4.
- 최진희,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2003.
- 유규용,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관한 연구: 모국방문단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2002.
- 윤현선,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자조모임 참가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최인성, 「국내입양의 문제분석과 해결방안: 목회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2.
- 김정희, 「한국 해외입양인 실태와 현황」.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2.
- 유미정, 「친부모와의 재상봉 후 입양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박미향, 「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1.
- 정진아, 「해외입양인의 한국 내 사후관리 욕구에 관한 연구: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1.
- 박미정, 「입양 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친모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2001.
- 전영준, 「국내입양 실태와 문제점개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2000.
- 최지은, 「해외입양인 카린의 일생을 통해 본 기독교사회교육의 과제 연구」. 韓神大 大學院 1999.

이경아, 「아시아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서울神學大 大學院, 1995.

조용원, 「國內入養의 構成要素와 沮害要因에 관한 연구: 聖家庭 入養院을 중심으로」,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 1992.

● 투고일 : 2005. 1. 20.

● 심사완료일 : 2005. 2. 25.

● 주제어(keyword) : 자기정체성(identity), 내면화(internalization), 자아 통합(ego integration), 문화화(acculturation), 기본적 신뢰(basic trust), 자율성(autonomy), 문화간 입양(inter-cultural adoption)